

번역, 학문/문화/국력, 그리고 영어교육

박 경 일

(경희대 영어학부)

한 나라의 번역 문화는 그 나라의 총체적 학문과 문화의 척도이자 국력의 가늠자이기도 하다. 올바른 번역 문화 없이 올바른 학문, 올바른 문화, 탁월한 국제경쟁력이 가능하겠는가. 따라서 우리나라의 번역 문화 바로 세우기, 그리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영어/외국어 교육의 급진적 개혁은 학문/문화와 나라 바로 세우기를 위해 촌각을 다투는 국가적 과업일 것으로 생각된다. 필자는 영문학 교수의 체험을 통해 이 같은 중요성/시급성에 대한 국민적 경종을 울리고, 이와 관련 우리 영어교육의 문제점들을 재검토하여 근원적 개혁 방안을 제시해 보려고 한다. 이제 모든(?) 외국어 전문가들의 오역(誤譯) 경험에 비추어 제도적인 거국적 오역 방지 대책 수립이 필요한 시점이다. 이 모든 과업들은 광범한 학문들 간의 학문공동체적 학제간 교류/협력에 의해 가일층 촉진될 수 있을 것이다.

1. 한국적 학문상황에 대한 절망적 단상 한가지

영문학자로서 철학에 문외한이지만, 문학과 동서철학/종교의 비교연구에 관

심을 가지고 있어 더러 철학 서적을 뒤적이다. 지난 여름 니체의 『권력에의 의지』(*The Will to Power*) 우리말 역본(청하출판사, 1999)을 읽었다.¹⁾ 도처에서 니체의 사상과 맞지 않아 보이는, 근원적으로 니체 이해가 되어 있지 않아 보이는 번역들이 발견되어 원문(영문)대조를 하고 싶었으나, 서울 시내의 대형서점들에서도 주요 대학도서관들에서도 영문판을 구할 수가 없었다. 비전공자로서 니체 철학 자체의 중요성에 관해서는 말할 입장이 아니나, 적어도 지난 20-30여년 동안 니체는 해체철학,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 관련 문학, 철학, 종교, 문화 등의 연구에 있어 가장 핵심적인 철학자였다.

그럼에도 우리 학문 기관의 중추인 대학도서관들에도, 외국서적을 공급하는 대형서점들에도 니체의 가장 핵심적 저작으로 알려진 『권력에의 의지』 영어본 하나도 제대로 갖추어져 있지 않다는 것은 우리 학문의 현실과 장래에 대한 절망감을 안겨주었다. 비근한 예로, 영어학부 1학년 영문학입문 강의를 위해 고대 희랍의 『신통기』(*Theogony*)의 시인 헤시오드(Hesiod)를 인터넷에서 검색했을 때 6만5천여개의 관련 영어 사이트들과 자료들이 쏟아져 나왔던 것과는 너무나 대조적이다. 그 학문적/문화적 빈곤함과 강대함이 너무 현저한 차이가 난다. 이 같은 환경에서 어떻게 니체의 영향을 받은 현대의 실존주의, 해체주의, 포스트구조주의, 신신학, 정신분석학을 심도 있게 연구할 수 있었을 것이며, 모더니즘과 포스트모더니즘의 문학/예술과 기타 이와 관련된 학문/문화를 제대로 연구할 수 있었겠는가. 근년에 우리 주변에서 해외유학과 해외교육이민이 봇물을 이루고 있는 근원적 원인이 이런 데 있지 않겠는가.

또, 니체를 선구로 하는 해체철학, 포스트구조주의, 포스트모더니즘의 인식론적 뿌리가 동양 사상, 특히 불교 사상과 상통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으며, 알렉산더 네하마스의 니체 읽기는 제2의 불타라 일컬어지는 기원 2세기의 인도

1) 『권력에의 의지』의 청하출판사 번역본(1999)에는 우리말 번역에 사용된 원본이 독일 어본인지 영어본인지에 관한 아무 언급도 없다. 출판사측에 문의한 결과 그 같은 책을 출판한 적이 없다는 답을 들었다. 단지, 여러 가지 정황으로 미루어 영어본을 번역대본으로 사용한 것으로 추측된다. 이 출판사의 『권력에의 의지』 우리말 번역본이 1988년 초판을 인쇄한 후 1999년에 12쇄를 찍었다는 것은 많은 독자들의 니체(『권력에의 의지』)에 대한 큰 관심을 반영하는 것이고, 따라서 그 같은 독자들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더더구나 좋은 번역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승려-사상가 나가르주나(漢譯名: 龍樹)의 해체사상의 현대적 주석서처럼 읽혀진다. 이미 십수년 전부터 서구에서는 이 양자를 접목시켜 비교연구하는 다수의 업적들이 나오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경우 그 같은 연구성과들이 얼마나 될지 심히 의심스럽다. 철학자 출신의 모더니스트 시인-비평가 T.S. 엘리엇은 “인도 철학의 오묘함이 대부분의 위대한 유럽 철학자들을 학동(學童)들처럼 보이게 만든다”고 비판한 바 있으며, “가장 전성기의 중국 문명은 유럽을 조악하게 보이게 만드는 우아함과 탁월함을 가지고 있다”고 비평한 바 있다. 그럼에도 정작 우리는 우리의 정신적 문화적 유산을 잘 간직하지도, 발전시키지도 못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으로는 서구추수주의와 또 한편으로는 동양주의적 동양 경시(김진석 교수의 「동양 담론의 공허함」[《교수신문》 203호] 및 관련 논쟁들, 그리고 졸고 「동양 담론은 공허한가?」[『오늘의 동양사상』 2002년 가을-겨울호] 참조)에 빠져 우리 것을 제대로 유지·개발하지 못하는 우리의 학문/문화 상황은 매우 심각한 정체성 위기에 직면하고 있다. 우리 학문/문화의 정체성 회복과 이에 기초한 국제경쟁력의 신장은 시급한 국가적/국민적 요청 사안이다.

2. 학문/문화를 위협하는 치명적인 오역(誤譯)의 예들

먼저, 니체의 핵심 사상을 함축하고 있는 것으로 생각되는 『권력에의 의지』의 몇 구절들의 우리말 번역을 영문본과 비교하여, 오역일 것으로 추정되는 몇 가지 사례들을 점검해본다. 영어교육의 부실로 인해 빚어지는 이 같은 영어 잘 못읽기와 오역들은 우리의 학문과 문화 그리고 궁극적으로 우리의 국력을 근원적으로 약화시킬 수 있는 요인들이다.

『권력에의 의지』 경구(aphorism) 556 중에 ‘The origin of “things” is wholly the work of that which imagines, thinks, wills, feels. The concept “thing” itself just as much as all its qualities.—Even “the subject” is such a created entity, a “thing” like all others: ...’(Kaufmann & Hollingdale 302)라는 구절이 있다. 그 의미는 “사물들”의 기원은 전적으로 상상하고, 생각하고, 의지(will)하고, 느끼는 것/존재의 작용/작품이다, “사물”이라는 개념 자체는 물론 그

것의 모든 특질들도 그렇다, 심지어 “주체”도 그와 같은 창조된 존재(entity), 다른 모든 것들과 같은 하나의 “사물”이다 정도이다. 사물들의 기원이 “상상하고 사고하고 의지하고 느끼는 것/존재의 작용/작품”이라는 말은 사물/현상에 대한 의미-부여 또는 해석 행위가 그 같은 사물/현상의 기원이 된다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에 의하면 원래적인 사물, 현상, 사실, 본질이란 없다. 주체를 포함하여 일체는 의미 부여 또는 해석에 의해 창조된 존재(created entity)이다. 니체에 의하면, 하나의 사물의 “본질”(essence)이라는 것은 그 사물에 관한 하나의 “견해”(opinion)일뿐이다. 니체의 이 같은 생각은 칸트적 물-자체(thing-in-itself) 개념에 대한 가장 급진적인 도전이라 할 것이다. 위의 영문 구절은 이 같은 의미들에 대한 이해가 선행되어야만 제대로 번역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사물”의 성립은, 철두철미하게 표상하고, 사고하며 의욕하고 감각하는 것의 작품이다. “사물”이란 개념 자체가, 모든 **고유성**과 마찬가지로 그러하다.—**“주관”에서조차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며, 그 밖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물”이다.**(청하출판사 번역본, 342쪽. 고딕체는 필자의 것)는 번역은 위 영문의 내용과는 매우 큰 차이를 보이고 있다. 만일 “qualities”라는 단어를 “고유성”이라고 번역했다면 이는 너무 터무니없는 오역이다. 번역의 제일원칙이라 할 것은 번역되는 원전 텍스트/언어(source text/language)를 가능한 한 충실히 목표 언어(target language)로 재생하는 것이다. “qualities”의 가장 일차적/핵심적 의미는 “고유성”과는 거리가 멀다. **“주관”에서조차 그렇게 만들어진 것이며**라는 구절은 위의 영문의 의미와는 큰 거리가 있다. 만약 이 구절이 오역이라면, 다음의 ‘**그 밖의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의 “사물”이다**’는 구절은 앞 구절이 오역이기 때문에 따라서 오역이 된다.

니체 철학—그리고 그의 전통을 이어받는 해체철학과 포스트구조주의—에 있어 “고유성”이라는 용어/개념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권력에의 의지』 경구 557은 ‘The properties of a thing are effects on other “things”:/ if one removes other “things”, then a thing has no properties,/ i.e., there is no thing without other things,/ i.e., there is no “thing-in-itself.”’ (Kaufmann & Hollingdale 302)이라는 구절이다. 하나의 사물의 속성들은 다른 “사물들”에 대한 효과들이다, 즉, 다른 “사물”들을 제거한다면, 하나의 사물은 아무런 속성들도 갖지 않는다, 즉 다른 사물들이 없다면 아무런 사물도 없다,

즉 자족적이고 자존적인 “물-자체”란 없다는 뜻이다. 때문에 ‘사물의 고유성’이란 다른 “사물”에게 행동을 유발하는 작품이다. 즉, 이 다른 “사물”을 없는 것으로 생각하면, 사물은 어떠한 고유성도 갖지 못하게 된다. 바꿔 말하면, 다른 사물 없는 사물은 없다. 바꿔 말하면, “물-자체”는 없다.(청하출판사, 342-3 쪽. 고딕체와 밑줄은 필자의 것)는 번역 역시 위의 영문의 내용과 많은 차이가 난다.

우리의 학문과 문화의 발전을 치명적으로 저해할 수 있는 오역의 많은 경우들은 원문의 의미를 정확히 파악치 못할 경우에 발생한다. 그리고 이 같은 사태의 진정한 원인은 우리의 교육이(국어와 외국어 등의 언어 교육을 포함해서) 일반적으로 이 의미의 문제를 소홀히 하기 때문일 것으로 생각된다. 예컨대 우리는 20세기를 대표하는 시구절로 널리 회자되는 T.S. 엘리엇의 장편시 『황무지』의 제1행 “April is the cruellest month...”(4월은 가장 잔인한 달)의 의미에 관해서 진지하게 생각/고민하지 않는다. 우리는 왜 5월이나 12월 아닌 “4월이 잔인”한지, 왜 “가장 잔인”한지를 생각해보지도 않고 이 구절을 읽고 말하고 쓴다. 우리가 깊이 있는 글을 읽어내지 못하는 이유는 이런 습관 때문일 것으로 여겨진다. 상황을 더욱 악화시키는 것이 TV의 보급으로 인한 전반적인 독서생활의 후퇴와 진지한 사고의 기피이다.

만일 “properties of a thing” 식의 원문을 “사물의 고유성”이라 번역했다면, 이는 명사의 단수와 복수의 차이를 엄밀하게 구별하지 않을 때 발생할 수 있는 오역이다. 우리 한국인/한국어의 한가지 특징은 이 단수, 복수의 개념에 대한 소홀과 경시이다. 니체에 의하면 본래적인 사물/현상(예컨대 물-자체)이란 없고 따라서 어떤 사물/현상에도 본래적인 “고유성”(property)이 없다. 단지 수시로 변하는 “속성들”(properties)만이 있을 뿐이다. 또 ‘effects on other “things”’라는 구절을 “다른 “사물”에게 행동을 유발하는 작품”이라고 번역했다면, 이는 원문의 뜻을 제대로 파악하지 못한 채 번역과 해석을 혼동한 오역의 사례라 할 수 있다. 간단히 “다른 “사물들”에 대한 효과들”이라고 번역하면 충분하다. 단, 이 구절은 그 의미가 무엇인지 명확히 이해되어야 한다.

위의 번역에서 “고유성”이란 단어는 인간의 고유성과 원숭이의 고유성, 남성의 고유성과 여성의 고유성, 정신의 고유성과 물질/육체의 고유성 등 불변하는 본질을 갖는 어떤 사물/현상에 고유한 어떤 성격/성질을 의미한다. 다시 말

해서 “고유성”이라는 단어는 “물 자체”가 있다는 전제를 내포한다. 그러나 니체에 있어서의 “the properties of a thing”이란 한 사물이 갖는 여러 가지 속성들인데 이것들은 그 사물의 본래적인 것이 아니라 그 사물이 **다른 사물들에게** 미치는 효과들이다. 예컨대 “흰 설탕가루”라는 사물의 속성들은 우리에게 “달다”, “하얗다”, “투명하다”, “가루이다”, “물에 녹는다”, “녹으면 끈적거린다” 등등의 느낌/효과들을 준다. 이런 효과들이 곧 흰 설탕의 속성들인 것이다. 만일 어떤 사람이 입맛이 쓴 나머지 흰 설탕을 먹고도 달지 않다고 느낄 경우 그는 자신이 먹은 흰 가루가 설탕이 아니라고 판단할 것이다. 흰 설탕가루의 속성들은 본래적인 것이 아니고 그것이 효과를 미치는 다른 존재들에 의존한다. 흰 설탕의 고정 불변하는 자족자존의 속성들, 다시 말해서 본질이란 없다. 즉 흰 설탕이란 “물 자체”는 없는 것이다. “물 자체”가 없을 때 “고유성”이 있을 수 없다. 흰 설탕은 어느 순간 그 단맛을 상실할 수도 있고, 하얗고 투명하고 가루인 상태가 아닐 수도 있다.

자라 보고 놀란 가슴 솥뚜껑 보고도 놀란다는 격언에 의하면, 자라는 그 본질로서 알려지고 이해되는 것이 아니라 솥뚜껑과의 연상/관계에 의해 그 정체성이 인식된다. 장님과 코끼리의 비유 역시 비슷한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여러 장님들이 저마다 코끼리의 여러 부위들을 만져보고 코끼리가 거대한 담벼락(옆구리 몸통)이라든가, 거대한 기둥(다리)이라든가, 거대한 부채(귀)라든가 하는 식으로 인식했을 경우 코끼리라는 존재는 이 같은 여러 효과들에 의해 그 정체성이 설명되는 것이다. 이 같은 인식에 의하면 우리의 인식은 부분적, 불완전한 것이고, 따라서 완전한 지식, 사실, 진리는 성취 불가능하고 무한히 연기/지연된다. 이것이 니체적/포스트모던적 비결정성/미결정성(indeterminacy)이다.

니체적인 사유에 의하면, 세계는, 우리가 그 세계 속에 살고 있다는 조건을 제외한다면, (다시 말해서) 우리가 우리의 존재어로, 우리의 논리 및 심리적 선입관들로 환원시키지 않은(인간에 의해 해석/환원되지 않은, 본래적인, 있는 그대로의) 세계는 하나의 세계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본질적으로 관계들의 세계이다. 특정의 조건들 하에서는 그것은 모든 하나 하나의 관점으로부터 다른 국면을 갖는다. 그것의 존재는 본질적으로 모든 관점으로부터 다르다. 그것은 모든 관점을 압박하지만, 모든 관점은 그것에 저항한다.—그리고 이것들의 총계가 모든 하나 하나의 경우에 전혀 불일치적이다.

니체는 『권력에의 의지』 경구 568에서 다음과 같이 쓰고 있다. ‘The world, apart from our condition of living in it, the world that we have not reduced to our being, our logic and psychological prejudices, does not exist as a world “in-itself”...’(Kaufmann & Hollingdale 306). 만일 이 영문을 ‘우리가 그 속에 살아간다는 조건을 도외시당한 세계는, 우리가 우리의 존재에 우리의 논리나 심리학적 선입견으로 환원되는 일이 없었던 세계는 세계 “자체”로서 현존하고 있지 않다’(청하출판사 번역본, 347쪽. 고딕체는 필자의 것)고 번역한다면 이 번역(자)은 원문의 의미를 이해하지 못한 것이 된다.

원문은 이런 뜻이다. 우리가 살고 있는 세계는 어쩔 수 없이 우리의 존재/삶, 우리의 논리 및 심리적 선입관들로 환원되지 않을 수 없고, 다시 말해서 우리에게 의해 해석/구축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에(이 대목에서 우리는 로고스는 공통이나 모두가 저마다의 이해/지혜를 가진 듯이 행동한다는 헤라클리투스의 구절을 생각하게 되고, 니체가 헤라클리투스를 계승하고 있다는 생각을 다시 하게 된다) 본래적인, 있는 그대로의 세계가 아니다. 즉 하나의 세계는 “그 자체로서” 존재하지 않는다. 세계는 본질적으로 해석들/관점들로 이루어지는 관계들의 세계이며, 특정의 조건들 하에서는 모든 하나 하나의 관점으로부터 다양한/불일치적 국면들을 갖는다. 그런데 세계의 이 같은 다양성/다수성이 인간에 의해 인위적으로 불변의 통일성, 본질이 부여되고 “세계 자체”로 구축(construct)된다는 것이다. “세계 자체”는 구축된 허구이다. 그리고 이것의 탈구축(de-construct)이 곧 해체이다.

우리의 번역 문화는 광범한 분야에 걸쳐서 오역들로 얼룩져 있다. 가장 우려스러운 것은 최고의 영어 전문가라 할 영문학 교수들 역시 이 같은 오역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다는 점이다. 서구 문화 도입/유입의 보편적 매체인 영어의 올바른 읽기와 올바른 번역이 선행되지 않고서는 올바른 학문 연구와 문화 발전을 기대할 수 없다. 아래와 같은 경우들은 학문적인 바탕을 뒤흔드는 치명적인 영어 잘못읽기/오역의 예들이 아닐까 싶다. 그것은 단순히 한 단어 또는 한 구절의 오역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건실한 번역문화를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았을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몇 가지 사례들을 들어본다.

데리다의 해체철학의 핵심사상을 전개하고 있는 에세이 「디페랑스」(“*Différance*”)의 한 구절 “Now if *différance* ~~is~~ (and I also cross out the “~~is~~”)

what makes possible the presentation of the being-present, it is never presented as such.”(*Margins of Philosophy*, p.6)가 “그러나 만약 차연이 현전자를 표상하고 드러내고 현전함을 가능하게 한다면(본인 역시 ‘차연이’에서 연결어인 ‘이’를 X표로 삭제하겠다), 현전자는 결코 동일하게 현전되지 못한다.”(문예출판사 번역본 123쪽. 고딕체와 밑줄은 필자의 것)고 번역되어 있다.

원문의 뜻은(차이와 연기라는 뜻을 갖는 단어) 디페랑스(*différance*)가 현존(현존함, 현존자)의 드러남을 가능하게 만드는 것이다(나 역시 이 “~~하다~~”를 X표한다)면, 그것(디페랑스)은 결코 그 같은 현존으로서 그 모습을 드러내지 않는다, 즉 디페랑스는 정체성/본질이라 할 것을 드러내지 않는다는 것이다, 드러낼 정체성/본질이라 할 것이 없기 때문이다. 괄호 속의 것들은 이해를 돕기 위한 보충설명들이다. 문장 구문상 “it”은 “the being-present”가 아니라 “*différance*”를 가리키는 대명사이며, “as such”는 “동일하게”가 아니라 “as such a being-present”의 뜻이다. “동일하게”에도 밑줄을 놓아야 할 이유가 없다. 번역 중의 “‘차연이’에서 연결어인 ‘이’를 X표로 삭제하겠다”에서 밑줄그어진 부분들도 모두 문제성 있는 번역들이다.

위의 구절은 데리다의 “디페랑스”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요한 매우 핵심적인 설명들을 함축하고 있는 중요한 구절이라 생각된다. 이 개념과 관련하여 필자가 이해하는 대로 간단한 설명을 첨부해본다. 예컨대, 25세 시절의 데리다 사진과 55세 시절의 데리다 사진 간에는 차이가 있다. 두 사진(간의 차이)은 25세 시절의 데리다라는 현존(자)과 55세 시절의 데리다라는 현존(자)을 드러내보여 준다, 즉 디페랑스는 “현존(자)의 드러남을 가능하게 만든다”. 그러나 그 두 현존(자) ‘사진’ 간의 차이는 고정된 실체(성)를 갖는 차이가 아니라, 25세, 35세, 45세, 55세 등 “매 순간의 데리다”들 간에 부단히 발생하는 차이들의 한 순간일 뿐, 불변하는 본질/실체성/정체성이라 할 것이 없이 끊임없이 연기되는 차이이다. 하나의 차이는 현존(자)이 아니라 “차이와 연기” 즉 차연이다. 다시 말해서 차연은 현존(자)으로서 드러낼 완전한 정체성/본질을 갖지 못한다. 문제를 더 복잡하게 만드는 것은, 이 같은 차이를 만드는 25세의 데리다와 55세의 데리다라는 현존(자) 역시 그 자체로서 불변의 본질/실체성/정체성이라 할 것을 갖지 못하는 불안정한 존재일 뿐이라는 점이다. 불변의 본질은 변하지 않는다. 변하는 것은 불변 본질이 아니다. 25세의 데리다와 55세의 데리다는 불변하는

존재(자)들인가.

이 같은 논의는 왜 데리다가 “차연은 ...이다”(difference is what ...)에서 “이다”를 X표하여 지우는지에 대한 설명이 된다. 차연은 일체 현상이 “...이다”라고 단정지를 존재성을 갖지 못한다는 데리다의 기본적인 인식론을 반영한다. 남성으로부터 여성으로 성전환한 인기텔런트 하리수는 남성“인”가 여성“인”가? 그(녀)는 잠정적으로 남성이었다가 또 잠정적으로 여성이었다가 다시 남성으로 전환될지 모른다. 하리수는 성적으로 남성/여성“이다”고 말할 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불변하는 정체성에 있어서는, 남성 하리수도 존재하지 않고 여성 하리수도 존재하지 않는다. 교미중인 뱀을 지팡이로 때렸다가 여성이 되어 7년 동안 살다가 다시 교미중인 뱀을 지팡이로 때려 남성으로 되돌아온 티레시아스의 신화는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보편적인 설명이다. 극단적인 경우는 헤라클리투스 학도인 “손가락 흔들기”의 크라틸루스이다. 그는 헤라클리투스가 같은 강물에 두 번 들어갈 수 없다고 말한 데 대해 한번도 들어갈 수 없다고 비판했다. 강물에 들어갈 주체도, 주체가 들어가는 강물도 단 한순간도 동일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이었다. 그는 어떠한 현상도 불변적으로 안정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이를 언어로 표현하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오직 손가락만 흔들었다. 데리다의 인식론은 크라틸루스의 급진적인 인식론적 무신론에 근접하고 있다. 그것은 불교의 색즉시공 공즉시색(色卽是空 空卽是色)과 불립문자(不立文字)의 인식에 근접한다.

데리다의 선구인 니체는 지식의 안정성을 회의하여 지식을 지움 아래 두었고, 프로이트는 정신을, 그리고 하이데거는 존재를 지움 아래 두었다. “지움 아래”(sous rature, under erasure) 둔다는 것은 곧 이것들을 “X표하여 지운다”(cross out)는 것을 의미한다. 그러나 이것은 위의 번역처럼 “삭제한다”는 의미가 결코 아니다. “삭제”(削除)의 사전적인 뜻은 “깎아서 없앴”(『동아새국어辭典』, 1990)이다. 데리다의 본문과 위의 번역에서 “is”와 “이다”가 깎아서 없어졌는가. 하이데거가 존재를 X표하여 지웠다는 것은 불변적인 존재(자) “Being”을 (부정하는 의미로) X표하되, 그러나 “Being”이라는 단어는 필요하기 때문에 그 단어를 X표된 상태로 인쇄함을 의미한다. 이 같은 발상이 곧 문자에 의존하지 않는다, 그러나 문자를 떠나지도 않는다는 불교의 불립문자(不立文字), 불리문자(不離文字) 사상과 매우 유사한 대목이다. 해체철학의 핵심적 개념들 중

하나가 바로 이 “지움 아래” 두기이다. 이 개념이 이해되지 않고서 어떻게 해체 철학을 이해할 수 있겠는가. 그리고 광범한 포스트모던적 현상들에 대한 이론적 토대를 제공하는 해체철학에 대한 기본적 이해가 갖추어져 있지 않은 상태에서 어떻게 여러 포스트모던적 현상들을 이해하고 논의할 수 있겠는가.

여기에서 사전의 중요성이 제기된다. 정상적인 영어/외국어 학습, 건전한 번역 문화, 그리고 건강한 학문/문화 발전을 위해서는 제대로 된 사전이 필수적이다. “cross out”이라는 구절은 우리 영한사전에 “줄그어 지워버리다, 지워 없애다” 식으로 풀이 되어 있다. 바로 이 대목이 우리 외국어사전들의 문제점이고, 우리 영어교육의 문제점이다. 번역자는 글의 문맥적인 깊은 의미를 고려하지 못하고, 영한사전의 뜻풀이에 과도하게 의존한 나머지 이를 “X표로 삭제”하다고 번역한 것이다. 불한사전의 번역에도 같은 오류가 발견된다. 『民衆에센스佛韓辭典』(1993)에는 “rature”에 대한 예문으로 “*manuscrit couvert de ratures*”를 제시하고 “삭제 투성이의 원고”라고 번역하고 있다. 사전 편찬자들이 “삭제”와 “지움”과 “가위표하기”의 문맥적인 의미 차이를 식별/인식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실인 듯하다. 우리말 사전을 포함하여(영한, 독한, 불한 사전 등) 외국어 사전이 잘못되어 있을 경우 이를 가지고 공부하는 학생들—학자, 각종 문화분야 종사자들을 포함하여—의 글읽기를 치명적으로 망치는 일이 생길 수 있으며, 따라서 이런 의미에서 좋은 국어 및 외국어 사전을 만드는 일은 국가적인 지원을 요구하는 사업이다.(그러나 우리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전혀 그 중요성을 인식/인정하지 않으며, 이런 점에서 우리는 구제할 수 없는 후진성에 빠져 있다. 이 가장 근원적인 기본이 제대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최상의 국제 경쟁력” 운운하는 것은 한낱 잠꼬대에 지나지 않는다.) 글의 의미는 문맥으로부터에 의해 발생한다. 같은 단어라도 문맥에 따라 매우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음을 번역자는 명심해야 한다.

Webster's New World Dictionary of the American Language(Second College Edition, 1982)에 의하면, “cross”는 “to make the sign of the cross over or upon, to draw or put a line across”로, 그리고 “cross off(out)”는 “to cancel by or as by drawing lines across”로 풀이되어 있다. “Cross that out and write it again.”라는 예문에서는 그 뜻이 더 명백하다. “cross out”는 잘못된 대목을 “X표한다”는 가벼운 의미이다. 물론 “cross(out)”에 “지운다”는 의미가 포함되어

있지만, 그것은 지우개로 박박 지워서 썼던 것이 안보이도록 지운다는 의미는 아니다. 따라서 이를 “삭제하다”고 번역하면 의미가 전혀 달라지고 만다. (같은 영영사전들이라고 해도 특정의 글을 읽는데 도움이 되는 사전이 어떤 것인지를 발견해내는 일 또한 매우 중요한 일이다. 예컨대, 여러 모로 유용한 사전인 *Longman Dictionary of English Language and Culture*(1992)의 “cross” 항목은 위의 문제된 구절을 읽는 데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 데리다의 차연 개념을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핵심 용어인 이 구절을 잘못 읽는다는 것은 데리다의 「차연」론 및 해체철학 전반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의 부족 때문이 아닐까 싶다.

이상과 같은 이해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다음과 같은 오역은 필연적이다. 데리다가 같은 글에서 인용하고 있는 소쉬르의 구절 “Even more important: a difference generally implies positive terms between which the difference is set up; but in language there are only differences *without positive terms*.” (*Margins of Philosophy*, pp.10-11)은 “더욱 중요한 것은 차이란 말은 일반적으로 차이와 차이에는 실체적인 궁극적인 것이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언어는 궁극적으로 결핍의 차이 그 자체다.”(문예출판사 번역본, 131쪽)고 번역되어 있다.

오역의 한 특징은 논리적 의미를 이해하기가 어렵게 돼 있다는 것이다. 위 번역 중의 “차이와 차이에는(필자의 밑줄) 실체적인 궁극적인 것이 있다”는 말은 무슨 뜻인가? “positive terms”에 대한 번역인 것으로 보이는 “실체적인 궁극적인 것”이란 무슨 뜻인가? (“terms”의 복수 의미가 번역에 반영되어 있지 않다. 한국인들의 영어읽기의 약점들 중 하나는 단수, 복수 구별을 하찮게 생각하는 것이다. 기본을 지키지 않으면 치명적인 실수가 빚어질 수 있다는 점은 아무리 강조되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혹시 차이와 차이 “사이”에는 실체적인 궁극적인 것이 있다는 뜻인가?

오역은 대체로 두 가지 원인에서 비롯된다. 하나는 글의 구문에 대한 파악 부족, 또 하나는 글의 내용에 대한 이해 부족—용어 및 개념의 이해 부족이 전체적인 내용 이해를 어렵게 만드는 경우도 있고, 반대로 전반적인 내용의 이해 부족이 구체적인 용어 및 개념의 이해를 어렵게 만들기도 한다—이다. 위의 번역자는 “a difference generally implies positive terms between which the difference is set up”이라는 구절의 구문과 내용을 모두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위 구절은 차이라는 것은 “positive terms” 사이에서 만들어진,

따라서 차이는 일반적으로 (차이가 그 사이에서 만들어지는) 이 “positive terms”를 암시한다는 구문/내용이다. 단, “positive terms”가 무엇을 의미하느냐가 이 인용문의 핵심적 난점이다.

또 한가지, 위의 번역에서 “in language there are only differences without positive terms”라는 구절이 “언어는 궁극적으로 결핍의 차이 그 자체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것은 도저히 이해하기가 어렵다. 번역자의 오역이라고는 생각할 수 없는, 어떤 사고에 의한 오역으로 생각되나, 결과적으로 이 번역은 상상할 수 없는 오역이 되고 말았다. 설사 좋은 번역은 못되더라도, 치명적인 오역을 피하는 비결은 문법과 구문에 충실하게 소위 직역을 하는 것이다. 위 구절은 “언어에는 적극적 조건들/용어들(?) 없이 오직 차이들만 있다”고 번역하면, 최소한 큰 실수는 방지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우리 한국인들의 영어 읽기의 최대의 약점이 영어를 문법과 구문에 맞추어 정직하게 읽지 못하는 점이다. 이것을 바로 잡는 길은 중학 1학년 영어교육부터 바로 세우는 길뿐이다.

또 다른 영문학자의 번역본에는 니체와 소쉬르의 유사성을 비교하는 대목에서 인용된 같은 구절이 “(언어에는 단지 차이만 있을 뿐이다.) 보다 중요한 것은 지금까지의 차이는 일반적으로 실제적인 개념들이었다는 사실이다. 이 실제적인 개념들 사이에서 차이가 생겼던 것이다. 하지만 언어에는 실제적인 개념이 없는 차이만 있을 따름이다.”(책세상 번역본 128쪽)라고 번역되어 있다.

이 “실제적인 개념들”(?) (positive terms) 사이에서 차이가 생겼다는 번역은 그래도 이해가 된다. 그러나 바로 앞의 “a difference generally implies positive terms”라는 구절이 “지금까지의(필자의 밑줄) 차이는 일반적으로 실제적인 개념들이었다는 사실이다”로 둔갑한 이유를 알 수가 없다. “차이가 실제적인 개념들이었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밑줄 친 부분은 원문에 없는 사족이다. 사족은 원본을 망친다. 번역은 잘 하면 제2의 창작이고 잘못 하면 반역이다.

“positive terms”라는 구절을 제대로 이해하는 것은 소쉬르와 데리다, 그리고 그들보다 앞선 선구인 니체의 사상에 접근하는 한 핵심이다. “positive”에는 “unrelated to anything else, independent of circumstances; absolute, unqualified” 또는 “that has, or is considered as having, real existence in itself, not just in the absence of other attributes” 등의 뜻이 있다. “독립/자존적”이라고 번역할 수 있을 이 개념은 칸트의 물-자체(thing-in-itself), 불교의 “자성”(own-nature,

own-being)에 가까운 뉘앙스를 갖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 “term”은 “either of two concepts that have a stated relation, as the subject and predicate of a proposition”, 즉 어떤 관계를 이루는 항목들의 어느 하나를 가리키는 뜻을 갖는다. 위의 “positive terms”와 관련된 오역들은 사전 찾기를 게을리 했을 경우, 여러 사전적인 뜻풀이들 중에서 적절한 것을 발견해내지 못했을 경우, 그리고 문제된 글구와 관련된 전반적 이해/지식이 부족할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사례들이다.

구조주의 언어학자 소쉬르의 주장을 요약하면, 일반적으로 인간과 원숭이는 본래적으로 서로 다른 독립자존적(?) 본질을 갖기 때문에 두 존재 간에는 차이가 있다고 말하지만, “pin”이라는 단어와 “pan”이라는 단어는 서로 다름에도(즉 두 단어 간에는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언어에 있어서는 이 같은 차이를 만드는 두 단어들이 독립자존적인(positive) 본질(특성/의미)을 갖지 못한다. 그저 영어라는 언어 체계/인습 내에서 p, i, n이라는 철자의 결합은 “핀”이라는 특성/의미를, p, a, n이라는 철자의 결합은 “팬”이라는 특성/의미를 가질 뿐이다. 따라서 언어에는 “boy”와 “bay”, “send”와 “sand”, “good”와 “food” 간에 차이들이 있지만 각각의 관계항목들은 그 자체의 독립자존적 특성이 없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서, 언어에는 차이들은 있지만 독립자존적 관계항목들(positive terms) 사이에서 만들어지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 점이 소쉬르와 기타 구조주의자들의 한계이다.

니체와 데리다에 의하면, 일체의 현상은 관계로 이루어진다. 니체는 『권력의 의지』에서 일체는 상호관계지어져 있다고 선언했으며, 데리다는 “텍스트 밖에는 아무것도 없다”고 주장한다. 데리다의 텍스트는 곧 관계망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서 관계들의 망 밖에는 아무 것도 없다는 뜻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사실은 이 같은 관계를 이루는 일체의 항목들은 그 자체로서 자족자존하는 독립자존적 특성을 갖지 못한다는 점이다. 이 점이 구조주의자들과 포스트구조주의자들 간의 결정적인 차이이다. 해체철학과 포스트구조주의는 자족자존하는 독립자존적 존재를 불신한다. 불교적인 표현을 빌면, 제법무아(諸法無我), 제행무상(諸行無常), 일체개공(一切皆空)이다. 불교의 핵심경전인 나가르주나의 『중론』은 “인연소생은 모두 공하다”고 선언한다. 인연소생이란 관계의 소산을 의미한다. 니체와 데리다의 인식은 나가르주나의 인식에 근접해 있다.

우리의 번역문화에는 또 하나의 중대한 문제점이 있다. 조나던 켈러의 『소쉬르』(Saussure)의 우리말 번역본(시공사, 1998)에는 **원문의 각주 내용이 본문에 설명문으로 삽입되어 있었다**. 편집자에게 문의한 결과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서 그렇게 하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 것처럼 답변했다. 만약 이런 현상이 번역출판의 일반적 관행이 되어 있다면, 이는 우리의 번역문화가 더욱더 심각한 병증과 위기에 처해 있다는 의미가 된다. 독자의 이해를 위해서건 그 밖의 어떤 이유로이건 간에, “번역”은 원전 텍스트의 모든 것을(가능한 한) 그대로 목표 언어로 바꾸어주는 것이 원칙이다. 어디까지나 본문은 본문, 각주는 각주 등으로 원전의 체제가 유지되어야 한다. 불가피하게 원문이 변형되었을 경우에는 “번역”이라는 표현을 쓰지 말고, “번안”이라든가 다른 표현을 써야 한다.

단어 하나, 구절 하나, 문장 하나의 오역은 간단히 그것으로서 끝나지 않는다. 경우에 따라서는 학문 전체를 와해시킬 수도 있고, 생사를 결정짓는 중대한 실마리가 될 수도 있다. X-레이 사진을 잘못 읽어 치명적인 질병의 치료 시기를 놓쳤을 경우를 상상해 보라. 올바른 글읽기와 번역은 너무나 중차대한 문제이다. 우리 모두 힘을 합하여 건실한 번역문화가 정착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무엇보다도 우선적으로, 번역문화의 보편적인 무질서화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전문번역가 양성 기관과 번역문화의 감독/장려 기관의 설립(우리 문학의 해외 보급을 지원한다는 목적으로 지지난해 연초에 개원한 문학번역원은 기껏 우리문학의 영역(英譯) 등을 통한 노벨 문학상 수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을 주어, 근원적인 번역문화 바로세우기와는 거리가 먼 것으로 생각된다), 번역 평론의 제도화, 그리고 영어 등 외국어 교육의 급진적 개혁이 요구된다.

3. 한국의 열악한 학문적/문화적 국제경쟁력:

도서관 콘텐츠 결핍과 영어교육 부실이 원인

번역, 학문/문화에 대한 이 같은 성찰들은 결코 단순히 니체(철학)의 문제도, 각종 “포스트” 철학의 문제도 아니고, 우리 학문/문화 전반의 황량한 풍토에 대한 현실적 증언이다. 대학들은 거대한 도서관 건물을 지을 일이 아니라 초

라한 콘테이너/가건물 도서관에라도 읽을 책을 풍성하게 공급해야 한다. 책과 콘텐츠 없는 거대한 도서관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부는 각급 교육기관들은 물론 모든 국민들에게 풍부한 도서를 공급해줄 책무를 갖고 있다. 책이 없이 무슨 연구가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예컨대, 우리는 모더니즘 연구 한번 제대로 해본 적 없이 포스트모더니즘 시대를 맞아 열병에 들든 듯 10여 년 법석을 떨더니, 각종 “포스트” 학문들에 있어 진정으로 내실 있는 연구 한번 제대로 해보지 못한 채, 이제 “포스트” 학문의 시대는 한물 갔다고 선언하고 또 다시 새로운 유행학문을 찾아 나서고 있는 것은 아닌가 싶다. 우리 학문은 너무나 유행을 좋아한다. 패션 모델들처럼. 마치 여러 유행을 거치면서 음미하는 것이 학문의 본령이구나 하듯이. 학문의 알맹이가 없을 수밖에 없다. 그러니 국제적 경쟁력이 없다는 비판을 받고, 급기야 대통령까지 나서서 국제 경쟁력 없는 교수 퇴출론을 내놓는 상황이 벌어지는 것이 아닌가. 문제의 심각성은 대통령도, 교육행정 당국들도, 대학 당국들도 문제의 핵심을 파악하지 못한다는 데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한마디로, 우리 학문은 아직 국제경쟁력을 제고해줄 환경이 갖추어져 있지 않다. 도서관에 책이 없는 나라에서 어떻게 국제 경쟁력 있는 학문이 육성될 수 있겠는가. 이 밖에도, 우리에게는 국제경쟁력 있는 학문의 영어화/외국어화 능력이 충분히 갖추어져 있지 않다. 영어교육의 부실 때문이다.

그럼에도 우리의 중등영어교육은 여전히 말하기 중심 교육에 대한 환상에 빠져 있고, 대학의 영어교육은 교양영어 강좌의 폐지 또는 무력화 방향으로 치닫고 있다. 매우 개인적인 견해이지만, 초등학교 학생들에 대한 조기영어교육이 이 같은 상황을 돌파하는 데 도움이 되리라는 생각은 전혀 들지 않는다. 기본을 바로 세우지 않는 한 경천동지할 개혁은 이루어지지 않는다. 국제화 시대의 국제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영어의 읽기/쓰기 교육이 최우선적으로 강화되어야 함에도 우리의 영어교육 현실은 이 가장 기본적인 방향과 역행하여 질주하고 있다.

교육이건 학문이건 기본이 바로 서야 나라의 장래가 바로 선다. 플라톤의 『국가론』은 국가의 장래를 위해 교육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지를 보여준다. 작년 초 서울대 신입생 넷 중 하나가 기초영어 학력 부족으로 교양필수 과목인 “대학영어”(이하 “교양영어”로 표기) 수강자격이 박탈되는 사태가 언론에 호들

갑스럽게 보도된 바 있다. 그러나 이 같은 사태는 전혀 어제 오늘 돌발적으로 생긴 일이 아니라 이미 지난 십 수년 동안 우리 대학들에서 목도되고 예상되어 왔던 바이다. 그럼에도 영어교육을 책임지는 각급 학교의 교육 담당자들과 교육을 책임지는 정부는 이 같은 사태의 중요성—이라기보다는 절박한 심각성—을 올바르게 인식하지 못하고 있다. 오히려 우리의 영어 교육 정책은 영어 공용화 논쟁, 초등학교 조기 영어 교육, 초, 중, 고등학교 “영어 영어수업”, 대학의 영어 강의 등등 갈피를 잡을 수 없이 휘돌리고 있다.

위의 어느 한 방안도 이 지구촌화(globalization) 시대, 전지구를 정보의 홍수로 휩쓸고 있는 인터넷의 시대에 걸맞는 영어교육 목표에 들어맞는 것이 없다. 한마디로 인터넷 시대는 영어 읽기와 쓰기의 중요성이 그 어느 때보다 강조되는 시대이다. 전 세계의 인터넷망을 떠다니는 정보들의 80% 이상을 차지하는 것으로 추정되는 영문 자료들은 고도의 영어 독해력을 갖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림의 떡이다. 그리고 영어 문맹에게 인터넷의 바다는 곧 익사(溺死)의 바다이다. 폐일언하고, 인터넷 시대에 가장 중요한 정보화 조치는 무엇보다도 영어교육의 강화이며, 새시대의 영어교육의 핵은 읽기/쓰기이다.(읽기/쓰기는 분리된 것이 아니라 동전의 양면처럼 불가분의 관계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우리 정부 당국과 고위 정책 결정자들은 초등학교에서부터 각종 상급학교에 이르기까지 컴퓨터 하드웨어만 공급해주면 정보화는 끝나는 것으로 믿고 있는 듯하며, “한국의 정보화 순위 세계 몇 위”에 흠족해 한다. 영어력의 뒷받침이 없이 어떻게 정보화가 가능하며, 영어력의 뒷받침 없이 정보화가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가장 최근의 보도에 의하면 한국의 인터넷 이용자 70여 퍼센트가 영어 사이트엔 “문맹”인 것으로 드러났으며, “영어를 할 줄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은 인터넷 정보에 제대로 접근하지 못하고 있고, 이런 언어격차가 지식 보급을 위협하고 있다”고 지적되었다(『조선일보』 2001년 9월 25일자). 그리고 이 보도에 의하면 한국어 사이트와 영어 사이트를 통해 얻을 수 있는 정보의 양과 질이 엄청난 격차를 보였으며, 영어 숙련도가 높은 학생들은 그렇지 않은 이들보다 2배 이상 많이 영어 사이트를 방문했고, 훨씬 명쾌하고 간결한 문제 해결 능력을 보였다. 이 같은 현상에 대한 대책은 영어교육의 개혁과 강화, 그리고 번역 소프트웨어의 개발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난 수년 동안의 소위 “세계화” 시대에 대학의 고급영

어 교육이 얼마나 시대의 상황에 역행하여 황폐화되었는지 관계당국은 전혀 모르고 있거나 관심이 없는 듯하다. 그동안 대학의 영어교육은, 학교마다 차이가 있지만, 대체로 전통적으로 최소한 1, 2학년 세 학기 정도를 할애했던 읽기 중심의 필수 교양영어 과정을 실용적인 영어력을 향상시킨다는 명분 하에 폐지하고, 이를 읽기, 말하기, 쓰기, 영화영어, 신문영어, 시사영어, 과학영어 등등으로 세분하여 한, 두 과목을 선택적으로 이수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읽기 교육을 치명적으로 약화시켰다. 경우에 따라서는 읽기 과목을 전혀 선택하지 않을 수도 있게 되어 있다. 물론 신문영어, 시사영어 등이 여전히 남아 있다고는 하지만 이것들은 영어의 수준이나 글의 내용 등 여러 가지 면에서 전통적인 교양영어 강의와 비교할 수 있는 성질이 결코 되지 못한다.(교양영어가 얼마나 실용적인 영어인지,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학문적 바탕인지 전혀 인식치 못한 졸속적 개악이었다. 그리고 이 같은 변화는 인문학에 대한 평가절하, 그리고 학부제의 확대 실시 등과 맥락을 같이 하였다.)

중등(영어)교사 양성 제도/과정에도 문제가 있다. 예비중등영어교사를 양성하는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에서는 무엇보다도 학생들에게 글(영어와 우리말 모두) 읽기를 충실히 가르쳐야 하며, 읽기 교육을 통해 제반 현상에 대한 분석적, 종합적, 비판적, 창의적 사고, 예민한 감수성, 그리고 무엇보다도 건실한 휴머니즘을 가르쳐야 한다. 그리고 이 같은 교육은 문학 읽기를 통해서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 사범대학 영어교육과의 문학 전공 교수들이 마치 영어교육(주로 영어회화 교육을 의미한다)을 오도하거나 망치고, 결과적으로 국제화 시대에 역행하는 존재인 듯이 비판되는 경우들이 있다. 학생들에게 서구적인 문화, 서구적 감성, 서구적 논리와 사유에 대한 이해를 영어영문학 교수가 가르치지 않는다면 누가 가르칠 것인가. 이런 항목들을 배우지 않고서도 국제화와 국제경쟁력이 성취될 수 있다는 것인가.

사범대학 영문학 교수는 영문학을 잘 교육하는 것이 즉각적인—그리고 가장 중차대한—소임이며, 학생들의 영어회화력을 향상시키는 것은 관련 과목 담당교수의 전혀 다른 소임이다. 때문에 영어영문학(특히 영문학) 교수가 영어교육과에 불필요한 걸림돌 같은 존재라는 식의 인식은 무지의 소치일 뿐 아니라 우리의 영어교육을 근원적으로 망칠 수 있는 위험천만한 발상이다. 아마도 최초로 문학과 교육의 문제를 본격적으로 거론한 이가 바로 플라톤일 것이다. 플

라톤은 고대 희랍시절 교육자의 역할을 겸했던 시인이 거짓을 유포하고 젊은이들을 오도한다는 이유로 시인을 그의 이상국가에서 추방하고 만다. 그러나 만일 문학이 젊은이들과 국가사회에 해악을 끼친다면 그 문학이 플라톤 이래 2천 수백 년 동안 오늘날까지 우리 주변에 남아 있을 수 있었겠는가. 교사에게 가장 중요한 덕목들은 풍부한 감수성과 인간적 정서, 비판적이고 창조적인 사고, 건실한 가치관과 세계관 같은 것들일 것이고, 이 같은 덕목들은 문학/철학 교육을 통해서 훈련될 수 있을 것이다. 학생들에게 영어(회화전 읽기전 쓰기전 간에) 또는 그 밖의 어떤 과목의 실력보다 더 중요한 것이 바로 교사를 통해 전수되는 (그리고 폭넓은 독서를 통해 개발되는) 이 같은 덕목들이다. 사범대학 영어교육과를 흡사 영어회화 교사 양성소 썸으로 착각하는 것은 우리의 영어교육 현장의 왜곡된 현상의 하나이다. 더욱 염려스러운 것은 교육행정 당국과 일부 편협한 교육자들이 그 같은 방향으로 우리 (영어)교육을 오도하고, 일부 언론이 이를 부채질한다는 것이다.

영어교육에 있어서의 (영)문학 교육의 중요성에 관해서 한마디만 첨부하고자 한다. 문학 교육은 언어 및 문화 교육과 함께 예술, 철학, 역사, 자연과학을 포함한 인문학 전반을 가르친다. 인문학 전반에 걸친 이 같은 훈련은 영어 교육만이 아니라 교육 전반의 기본이자 중추이다. 이 같은 훈련과정이 결여된 영어/언어 교육은 빈 껍데기 교육이다. 물론 말하기/듣기 교육은 필요하다. 그러나 “April is the cruellest month....”의 의미도 이해하지 못하고 가르치지도 않는 영어교육은 죽은 교육이다. 지난 반세기의 우리의 영어교육은 대체로 이런 교육이었다고 생각된다. 영어교사들이 셰익스피어와 도스토예프스키와 T.S. 엘리엇과 플라톤과 니체와 실존주의와 휴머니즘과 생태주의에 관해서 공부한 바가 없다면 그들이 학생들에게 무슨 비전을 제시할 수 있겠는가. 우리의 영어교육은 이제 이 죽은 교육으로부터 벗어나야 한다. 우리의 영어교육은 이제 읽기/쓰기 교육으로의 근원적이고 급진적인 개혁을 요구하고 있다.

참고문헌

- 네하마스, 알렉산더. 『니체: 문학으로서의 삶』. 책세상, 1994.
- 니체, 프리드리히. 『권력에의 의지』. 청하출판사, 1999.
- 테리다, 자크. 『해체』. 문예출판사, 1996.
- 레블, 장프랑와 및 마티유 리카르. 『승려와 철학자』. 이용철 역. 김완수-박경준 감수. 창작시대, 1999.
- 벨, 로저 T. 『번역과 번역하기: 이론과 실제』. 박경자-장영준 옮김. 고려대학교출판부, 2000.
- 컬러, 조나던. 『소쉬르』. 시공사, 1998.
- Derrida, Jacques. *Margins of Philosophy*. Tr. Alan Bass. Chicago: U of Chicago P, 1982.
- _____. *Writing and Différance*. Tr. Alan Bass. Chicago: U of Chicago P, 1978.
- Nehamas, Alexander. *Nietzsche: Life as Literature*. Cambridge & London: Harvard UP, 1985.
- Nietzsche, Friedrich. *The Will to Power*. Trs. Walter Kaufmann & R.J. Hollingdale. New York: Vintage Books, 1968.

[Abstract]

Translation, Sciences/Culture/National Strength, and English Education

Kyung-il Park

(Kyung Hee Univ.)

Translation is one of the most important ways of “sharing information across cultural borders in a world constantly growing smaller” and so nowadays keen awareness of the significance of developing and establishing a proper and healthy translation culture has been rapidly increasing. It may even be said that all the humanities, arts, sciences and other cultures of a country entirely depend upon this proper and healthy translation culture, which in turn means that a country’s progress and prosperity cannot help being founded upon this culture. On the other hand, a corrupt wasteland of (mis-) translations poses a serious threat to the progress and prosperity of a country. To prevent this kind of national mishaps is the most urgent and pressing imperative on the current national agenda. These considerations indicate the urgent necessity to set up in this country right circumstances for a desirable translation culture, which may be realized and accelerated by immediately institutionalizing translation criticism and by radically reforming the traditional as well as current foreign language, especially English, education towards one which is reading/writing-oriented, instead of speaking-oriented.